

오시(御師) 주택(옛 도가와 가문 주택)

18세기부터 19세기까지 후지코 신앙이 전성기를 맞았던 당시에는 매년 여름이 되면 수많은 후지코 단체가 후지산을 등정하기 위해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이때 각 단체의 인원은 적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천 명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이 맨 처음 들른 곳은 후지코 순례자들에게 신앙을 지도하고 등산에 필요한 물건과 장비, 그리고 숙박을 제공했던 신관 오시의 거처(오시 주택)였습니다.

전성기에는 86채의 오시 주택이 후지요시다에 있었지만 현재 숙박할 수 있는 곳은 극히 적습니다. 도가와 가문 주택도 조상 대대로 순례자들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오시 주택이었지만, 현재는 후지코에 관한 자료를 전시하고 후지산 등정을 앞둔 순례자들이 어떤 준비를 했는지 알려주는 박물관으로 변모했습니다.

목욕재계와 여행 준비

오시 주택은 최대한 많이 서로 담을 맞대고 늘어설 수 있도록 중심가 도로변의 정면 폭이 좁고 안 길이가 긴 가느다란 부지에 지어졌으며 각각의 오시 주택 앞에는 비석과 목욕재계를 위해 후지산의 물을 끌어온 수로가 있었습니다. 또한 오시 주택에는 입구가 여러 개 있었는데, 가장 넓은 것은 지위가 높은 관리와 신앙과 관련해 위대한 업적이 있는 방문객, 그리고 오시들의 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입구 안쪽은 주택에 따라 그 배치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도가와 주택은 부엌과 식당이 있는 안채와 뒤편 부지 안쪽에 증축된 뒤채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오시 주택에서는 매일 20~30명이 숙박했기 때문에 매우 많은 식기와 침구 등 다양한 물품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 물품들은 후지코 단체가 숙박하기로 정한 오시 주택에 기부하는 것으로 충당되었지만, 다른 단체보다 더 많이 기부해 깊은 신앙심을 나타내려는 후지코 특유의 전통으로 이 수요는 충분히 충족되었습니다. 등정 일정이 미리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은 반드시 그 단체에서 받은 식기류로 식사가 제공되도록 집 안의 다양한 식기와 용구를 계획적으로 꺼내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장기간에 걸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오시는 후지산 등산 계절이 끝나면 에도등으로 나가 후지코 신자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도가와 가문 주택에서 신앙의 중심지로 여겨졌던 뒤채의 고신젠노마(신 앞의 방)라는 방에서는 오시가 순례자들에게 신앙과 등정할 때 해야 할 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오시는 순례자를 대신해 후지산에 기도를 드렸고 그와 동시에 센다쓰라 불린 순례자의 대표는 다른 순례자를 선도하며 후지코의 교리를 표현한 염불을 외었습니다. 옛 도가와

가문 주택에서는 이러한 의식을 녹음한 음성을 재생하여 당시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장엄한 의식의 모습을 현재에 전하고 있습니다.

순례자들은 뒤편에 숙박하며 험난한 등정을 출발하기 전 마지막으로 쾌적한 밤을 보냈습니다. 다만 쾌적이라고 해도 여름 등정 성수기 때는 매우 많은 투숙객이 머물렀기 때문에 일부는 복도에서 자야 하는 등 실제로는 ‘적어도 비교적 쾌적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를 전하는 유물

도가와 가문 오시 주택의 안채는 1768 년에 건축되었고 뒤편은 그로부터 약 1 세기 후인 1860 년경에 증축되었습니다. 이 주택은 필요한 보수와 복원 외에는 순례자들을 돌봤던 시대의 모습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후지코 신앙을 대중에게 전파하여 숭배의 대상이 되었던 지키코 미로쿠(1671~1733)의 상을 비롯해 수많은 귀중한 유물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순례자들이 등정할 때 걸쳤던 귀중한 옷옷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후지산을 현세 이후에 존재하는 영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후지코 신자들은 같은 옷옷을 시신을 감싸는 데에도 사용했습니다. 산 정상으로 향하는 길에서는 스스로의 행적을 기록하기 위해 도중의 신사나 기타 지점에서 옷옷에 고슈인(증명 도장)을 찍으며 나아갔습니다.

오시 주택(오사노 가문 주택)

후지산 뮤지엄 부지 내에는 마찬가지로 조상 대대로 오시였던 오사노 가문의 주택이 복원 전시되어 있습니다. 오시 주택에 대해 좀더 알고 싶다면 이곳을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주택과 옛 도가와 가문 주택을 비교해보면 후지코 신앙이라는 넓은 틀 안에서 각각의 오시 가문이 어떻게 독자적으로 전통을 유지해 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